

# 평 화 선 언

어머니는 제 동경의 대상이며 저를 따뜻하고 소중히 길러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당시 16 세의 여성은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도시락을 들고 집을 나선 그날 아침이 마지막 헤어짐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77 년 전 여름,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인류를 향해 첫 핵무기가 투하되어 작렬한 것이 바로 그날 아침입니다. 히로시마역 부근에 있던 여성은 강렬한 빛과 함께 등 뒤의 쿵!하는 폭풍에 몸이 날아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후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는 시내를 어머니를 찾아 정처없이 떠돌던 중 눈에 들어온 것은 새카맣게 탄 엄청난 수의 시신들. 그중에는 선 채로 소의 목을 부둥켜안고 타 버린 시신과 바닷물 위를 둥둥 떠 다니는 시신도 있어, 하루 아침에 일상이 돌변한 그날의 광경은 마치 지옥도와도 같았다고 떠올립니다.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정치가가 국민을 전쟁의 도구로 삼고 타국의 죄 없는 시민들의 목숨과 일상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통한 억제력 없이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전쟁 체험을 통해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계의 실현을 지향하기로 한 인류의 결의에 반하는 건 아닐까요? 무력을 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이상을 추구하기를 포기하고 현 상황과 타협하는 것은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오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정치가에게 핵 버튼을 맡기는 것은 1945 년 8 월 6 일의 지옥도를 재현하는 것이며, 인류를 핵 위협에 계속해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핵 버튼을 모두 없애야만 합니다.

또한 타인을 위협하고 그 존재마저 부정하는 행위를 하면서까지 자기중심적 사고를 관철시키는 것이 허용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 번 ‘전쟁과 평화’로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남긴 ‘타인의 불행 위에 자신의 행복을 쌓아서 안 된다. 타인의 행복 속에 비로소 자신의 행복도 존재한다’는 말을 되새겨야 합니다.

올해 초에 핵무기 보유 5 개국은 ‘핵전쟁에 승자는 없으며 결코 싸워서 안 된다’, ‘NPT(핵확산금지조약)의 의무를 이행해 나가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착실히 이행하려고 하지 않음은 물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국가가 있습니다. 왜인가요? 지금 핵보유국이 취해야 할 행동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그 실현을 위해 국가 간에 신뢰를 쌓고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핵보유국의 정치가는 이러한 행동을 결의하기 위해서라도 꼭 피폭지를 방문해 핵무기 사용의 결말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 핵무기를 없애는 것 이외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점을 확신했으면 합니다. 특히 내년이 이곳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담에 출석하는 정치가에게는 이 점을 강력히 기대합니다.

히로시마는 피폭자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원점으로 삼고, 또한 핵무기 근절에 평생을 바친 쓰보이 스나오씨의 ‘네버 기브업’ 정신을 계승해 핵무기 근절로 가는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그 실현을 향해 전진하겠습니다.

세계 8,200 곳에 이르는 평화도시의 네트워크로 발전한 평화수장회의는 올해 제 10 회 총회를 히로시마에서 개최합니다. 총회에서는 시민 각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전쟁과 무력 분쟁이 없고 생명을 위협에 노출시키는 사회적 차별이 없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공유하는 시민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아울러 평화를 기원하는 가맹도시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모든 폭력을 부정하는 ‘평화 문화’를 발전시키겠습니다. 평화수장회의는 정치가가 핵 억제력에 의존하지 않고 대화를 통한 외교 정책을 지향하도록 지지하겠습니다.

올해 6 월에 개최된 핵무기금지조약 제 1 회 체결국 회의에서는 러시아 침공이 벌어진 상황에서 핵무기 위협을 단호히 거부하는 선언이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핵무기에 의존하는 국가가 옵서버로 참가한 가운데 핵무기금지조약이 NPT 에 공헌하고 이를 보완하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우선 NPT 재검토 회의에서 가교 역할을 함과 동시에 다음 체결국 회의에 꼭 참가해 한시라도 빨리 체결국이 되어 핵무기 근절을 위한 움직임을 지지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평균 연령이 84 세를 넘고 심신에 악영향을 끼치는 방사선으로 인해 생활 면에서 여러 고충을 안고 있는 많은 피폭자들의 고뇌를 함께 나누고 피폭자 지원책을 확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오늘 피폭 77 주년 평화기념식전에서 원폭 희생자들의 넋에 진심으로 애도를 표함과 동시에 핵무기 근절과 더불어 영구적 세계 평화의 실현을 위해 피폭지 나가사키,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2 년 8 월 6 일

히로시마 시장  
마쓰이 가즈미  
번역: Ability InterBusiness Solutions, Inc.